

# “지역과 성장하며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지역 상생 협력 의지 등 강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제도 개혁과 기금 수익률 제고, 그리고 전북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전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진행된 개혁에 더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재정립,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체계 편입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국민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군부부·출산 크레딧의 발생 시점 적립,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가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전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사장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 제고가 핵심”이라며 글로벌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력 운용인력 채용과 함께 신입 인재를 선발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투 트랙 인재 전략’도 추진한다. 전북 이전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운용인력 확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공단은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부터 치매 노인인재를 선발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투 트랙 인재 전략’도 추진한다. 전북 이전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운용인력 확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공단은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부터 치매 노인인재를 선발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투 트랙 인재 전략’도 추진한다.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낮은 수수료로 취약계층의 재

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상생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이전 이후 국내 금융기관 전주시사무소 16곳 유치,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정읍 인재개발원 건립, 마을지치연금 사업 등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전주에 사무소를 둔 자산운용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주 인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전북 혁신도시 금융거점 조성 발표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 3년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북에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와 협력해 금융중심지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과 함께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상근 기자

#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미래 경쟁력 핵심”

### 전북건설단체연합회, 균형 잡힌 도시 성장·지역경제 활력 전망

전북 지역 건설업계가 완주군과 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북 내 10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5일 성명을 내고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도시개발과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완주의 넓은 개발 가능 부지와 산업단지 자원, 전주의 기존 도시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전략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통합을 통해 무분별한 외곽 개발을 줄이고 체계적인 도시 확장과 재개발, 교통망 확충,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주택 건설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재철 회장은 “통합이 이뤄지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시너지는 전북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통합 이후 도시개발과 건설 사업에 책임 있게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련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통합 추진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

###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특성산업지원(원장 윤여봉)이 도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성장과 재도약을 돕기 위한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13개 시·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분야는 기술사업화와 마케팅 활성화다. 기술사업화 부문에서는 공정개선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부문에서는 특허 및 품질인증,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판촉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자부담 10%는 별도다. 올해는 총 9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경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진원으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이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와 상수원 호소 주변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9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군산·익산 등 주요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변 하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등

### 전북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감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불법 소각이나 수질오염 사고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김호은 청장은 “연휴 기간 환경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틈을 노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정기예금 만기 이벤트 경품 증정

### 전북은행, '만기 후 찾아오는 달달한 리워드 페스타' 성료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정기예금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기 후 찾아오는 달달한 리워드 페스타’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당첨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했다.

전북은행은 5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 이번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한 개인 고객이 자금을 전북은행에 재예치할 경우 감사의 의미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정기예금 만기 금액 이상을 재예치한 고객 가운데 매일 20명씩, 총 80명을 추천해

1인당 5만 원 캐시백을 지급했다. 또한 만기 금액을 초과해 재예치한 고객 중 최종 1명을 선정해 100만 원 캐시백을 제공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겨주시는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당첨 여부와 향후 진행되는 행사 관련 정보는 전북은행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속뱅크’,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북신용보증재단, 1100억원 규모 민생안정 자금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1월 26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총 1,1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전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상품은 신규 보증과 대출 보증으로 구성됐다. 신규 보증 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보증’과 ‘시·군 희망터드림 특례보증’이 있으며,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과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을 위한 대환 상품으로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과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저리 금융 이용을 돕기 위해 도와 시·군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신보는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보증 처리 기간도 단축했다. 기존 평균 7일가량 소요되던 보증 심사 기간을 3일로 줄여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현장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농촌진흥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농촌진흥청이 정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종합평가는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 국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농촌진흥청은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고 득점 기관으로 선정되며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청장 주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와 만족도 평가에서 중앙부처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승돈 청장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